

문화재 보수 욕심에 탈법의 늪 빠진 사찰들

보조금 50억 부당 수령 보수업체 대표 3명·주지 7명 적발 면허대여자·공무원 등 39명도...무면허자 부실 복원 가능성

전남의 유명 사찰 주지들이 문화재보수 업체와 짜고 보수공사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문화재보수업체들은 자격이 없는 현장기술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부실 복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0억 원대 문화재 보수공사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문화재보수업체 대표 3명, 백양사·불갑사 등 전남지역 유명사찰 주지 7명, 지자체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문화재보수업체 3곳에 문화

재보수기술 관련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문화재보수기술자 등 면허대여자 38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수업체 대표 A(51)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지역 6개 지자체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보조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수업체는 문화재 보수공사의 특성상 관련업체가 많지 않고, 50%에 이르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찰에 접근, 사찰이 부담해야 할 10~20%의 공사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사찰 측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설을 정비할 수 있어 이들과 결탁했다.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보수기술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무자격자들을 현장대리인으로 앉힌 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자 현장대리인들은 불갑사 사천왕상 주변 정비사업 등을 맡아 공사했다.

면허대여자들은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로 연간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겼다.

담당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사찰 측의 전용 통장계좌 사본 등을 살펴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경찰은 문화재 보수공사의 특성상 민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입찰방식도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

면서 이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보수업체의 경우 자부담을 대납하는 대신 그만큼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부실자재를 사용하거나,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공사비를 부풀렸다”면서 “업자의 필요에 의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자격자들이 공사를 감독하거나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화재의 부실 복원은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도 힘들다”며 “수사에서 드러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관계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약 밀반입 양주에 필로폰 녹여 들여오다 적발

광주지검, 2명 구속기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약 밀반입 사건이 적발됐다. 양주에 필로폰을 녹여 국내로 들여오다 검찰의 수사망에 걸린 것이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민)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A(50)씨와 중국에서 필로폰을 양주에 녹인 기술자 B(68)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필로폰이 든 양주병을 수화물로 위장해 중국에서 김해 국제공항으로 가져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전인 2월21일 중국 광저우에서 A씨에게 필로폰 30g이 녹아 있는 양주병(1ℓ)을 건네주며 입국할 때까지 고가라고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약 30g으로, 약 1000명(1회 투약 약 0.03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출입국 검사 시 고체상태인 필로폰이 발견되는 것을 피하려고 양주에 녹여 액체 상태로 밀수하려 한 것

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필로폰이 든 양주를 직접 음용할 경우 ‘마약 밀수’라는 위험부담에 비해 수익이 낮아 액체를 고체화하는 특별한 증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녹인 필로핀 양이 30g 1000명분인데 양주 1병으로 1000잔을 만들 수 없는데다 음용법은 환각효과도 낮기 때문이다.

또 액화 상태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 사실 일부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최근 국내 마약 제조는 사실상 근절된 상태인 반면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수법의 마약 밀수까지도 철저히 단속해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14명의 마약사범을 구속 기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추진 광주시교육청 부지 물색

광주시교육청이 정선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해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특수학교 신설은 2014년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장회국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말 신설 추진 협의체가 구성됐다.

설립 규모는 영아 1학급, 유치원 과정 2학급, 초등 과정 12학급, 중학교·고등학교 각 9학급, 취업을 위한 전공과 6학급 등 39학급이다.

학교 부지는 구 국군광주병원 부지나 풍암동 중앙공원 내 부지 등 7곳이 떠올랐으며 광주시에 활용 가능성 검토와 기타 부지 추천을 요청했다.

특수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원은 500억원으로 예상되며 부지 매입비의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는 교육부가 담당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교육청 현안 사업으로 특수학교 신설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동성예 대책 시민연대 발대식. 광주시 동성예(차별금지법) 대책 시민연대는 2일 오후 2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강당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 단체는 앞으로 동성예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벌일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박준영 당선인 “돈 받은 적 없다...국민께 죄송”

‘공천 현금 혐의’ 검찰 출두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영양·무안·신안)이 검찰에 출석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2일 오전 9시50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받은 적 없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경기가 어려워 일자리 문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럴 여력 없이 수사를 받게 돼 마음이 안타깝다”며 “지지 해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죄송스

럽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선거캠프 관계인 등 핵심 참고인들이 무더기로 연락두절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검찰에 출석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보(64·구서)씨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당선인에게 돈을 건넨 김씨를 구속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련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교수 채용 회의록 위조 의혹 논란

정외과 일부 교수 “공채 반대가 찬성 둔갑” 진상 규명 촉구

학과장 “절차 문제될 게 없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외교학과 발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수 공채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대

학본부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열린 교수회의에 일부 교수가 참석, 상반기 공채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자리를 뺏음에도 참석자 모두 공채 방침과 채용 기준 등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회의록이 대학 본부에 제출된 점을 들어 학교측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대학본부에는 이같은 요청에 따라 감사에

들여갔다. 학교측은 앞서 정외과의 공채 신청안을 승인, 교수 채용 공고를 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교수들간 합의로 공채 방침·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상반기 교수 공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위원회는 해당 학과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중요한 의사결정은 충분한 토론과 타협을 거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과 운영에 관한 교수 합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위원회는 또 해당 규정

은 현 총장이 만들었음에도, 대학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채 여부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학과장인 A교수는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만큼 모든 의견을 세부적으로 적지 않고 결정 사항만 간략하게 적는다”면서 “이번 교수 공채도 과반수 참석, 과반수 합의 등 공식 절차와 요건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결 방식도 만장일치가 아니며 2007년 이후 단 한 번의 교수 채용도 이뤄지지 못해 교수 채용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만취 선원 미끄러져 바다 빠졌다가 구사일생 구조

생다발

○...선박에서 술을 마시던 만취상태의 선원이 배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해경에 구조.

○...2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남모(45)씨가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완도항에 정박중이던 A어선 선미갑판에서 실족, 바다에 빠졌다가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다는 것.

○...남씨는 안주를 구입하기 위해 배 밖으로 이동하던 중 바다에 빠졌는데, 해경 관계자는 “남씨가 바다에 빠지면 서 부위물을 붙잡아 목숨을 건졌지만 신고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 | | |
|---|---|--|--|
| <p>4층 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p> <p>1층 (커피숍 입점)</p> <p>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p> <p>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p> <p>□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p> <p>010-6670-9800</p> | <p>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p> <p>(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p> <p>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 좋음)</p> <p>□ 감정가 (분할 시) → 56억 □ 용자 → 26억(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38억</p> <p>010-7384-7800</p> | <p>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p> <p>□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p> <p>□ 사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p> <p>□ 사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p> <p>□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빌 (빌라 원룸) - 2층 (11평) 은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p> <p>□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1층 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식당,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p> <p>□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아파트 - (6평) 2층-전경 좋음, 주변골프장,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p> <p>010-6834-4800</p> | <p>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p> <p>□ 전남 장성 삼서 -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1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정성 상무대 입주, 대로변 □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34억 2천만</p> <p>□ 서구 양동 - (토577평, 건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기온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 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p> <p>□ 서구 화정동 -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 현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49억 7천</p> <p>□ 동구 동명동 - (토211평, 건608평) (근린시설) - 1층 (소매점) 2층~8층 (오피스텔 룸) - 동명 교회 북쪽 인근, 4차선 도로접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p> <p>□ 전남 순천 조례동 - (토2332평, 건3960평) (근린시설) - 7층건물 (수영장,사우나,골프장,주택,헬스) 복합 건물 - N백화점 부근, 대운아파트 단지, 순천C중상지 대로변 □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 5천</p> <p>□ 북구 운암동 - (토 66평, 건 194평) (근린시설) - 1층~5층(사무실) 지하(음식점), 6차선도로 접 □ 감정가 7억 4천 - 최저가 7억 4천</p> <p>경매 교역은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되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입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인원분, 부동산 경매 관심 인원분, 가족처럼 알려드릴 환영합니다.</p> <p>010-6832-9700</p> |
|---|---|--|--|